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3. 26.(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안인수 위원, 박병현 위원, 천지연 위원,
박소정 위원, 김종은 위원(이상 6인)
- 불참위원 : 박성주 위원, 조애숙 위원, 박경숙 위원, 박종일 위원,
박배현 위원, 이지호 위원, 천현진 위원, 이현규 위원
(이상 8인)
- 여수MBC : 경영심의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이상 3인)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추위가 남아 있으나 계절은 어느덧 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며 지역사회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과 지역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 등 대외 여건도 지역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현안들이 이어지는 시기일수록 이를 차분히 짚어가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가 충실한 취지와 균형 있는 보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 언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도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호인 사장께서는 중요한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3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콘텐츠센터장

콘텐츠센터장 이복현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섬박람회를 앞두고 금오도를 추가 촬영 및 취재하여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오도 편을 기획·구성 중이며, 4월부터 본격적인 추가 촬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특별시장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가 지난 3월 17일과 18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목포·여수MBC가 공동 편성하여 이틀간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로트클라쓰’는 봄철 녹화를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남 밀양 딸기 시배지 축제에 참여하여 녹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주에는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기간 중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관련 녹화 및 유튜브 라이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내에 보관 중인 아날로그 테이프 자료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디지털 전환 이후 메타데이터 기반 아카이빙까지 진행하여

공공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아카이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문진 공모는 이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언론재단 공모에도 참여하여 공적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월 계획입니다. '박성언의 음악식당' 프로그램 리뉴얼을 추진하여 일부 코너를 개편하고 새로운 형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한 주간 재정비 기간을 갖고, 4월 6일부터 새롭게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달 순천에서 진행한 '시 토크 콘서트 딸깍' 강연 내용을 유튜브 콘텐츠로 재편집 중이며, 4월 중 업로드하여 시청자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의 의견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 행정통합 및 지방선거 관련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 요청에 따라 '라디오 전망대 정치한판', 'YMCA 토론 취재기', 뉴스 브리핑 등을 통해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감시와 견제 역할 강화 요청에 따라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시정 질의를 하지 않는 후보자', '시민이 세우는 선거 기준'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으며, 영호남 무투표 당선 문제와 관련한 취재 및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여수 세계섬박람회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뉴스 브리핑과 이슈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감사원의 여수공항 개선사업 부실 시공 지적, 중동 사태에 따른 여수지역 경제계의 정부 지원 요구, 순천 반도체 산업단지 기업 유치 관련 소식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라전 인터뷰'를 통해 여순사건 표기 오류를 학생들이 지적하고 수정 요청을 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역 이슈를 다양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광수 보도센터장께서 그간 보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센터장입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도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 지방선거, 지역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7월 출범이 확정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내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도의 난이도가 높았으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

다.

특히 농어촌 지역 소외 문제, 동부권 청사의 기능과 위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재하였으며, 지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통합 및 의대 유치 문제도 연계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초기 8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경선 과정과 경선 룰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남 동부권이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동부권 집중 행보도 주요 뉴스로 전달하였습니다.

산단 관련 보도에서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여수산단 영향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나프타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해 원유 수급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난 점을 분석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고흥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지역 산업계 대응도 주요 뉴스로 다루었습니다. 포스코의 수용 입장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전기요금 문제는 뉴스데스크와 투데이를 통해 보도하였으며, 섬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문제는 외국어 서비스 부실 등 전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 취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원회가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뉴스 제휴와 관련하여 광주·목포·여수MBC 공동으로 설명회에 참여하고 제휴 가능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도 행정통합 관련 다양한 쟁점, 여수 관광 인프라 및 소비자 만족도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도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집중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이후 제도 정착 과정과 연착륙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수산단 산업위기 대응 문제와 중동 리스크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섬박람회 준비 상황과 콘텐츠 점검도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축제 시즌과 관련하여 지역 축제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획보도로는 '이슈 프리뷰'를 통해 주간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있으며, '로컬 ESC'를 통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거 보도와 관련하여 '초점 6.3' 기획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초점 6.3 현장', '초점 6.3 인물' 등을 통해 후보자 인터뷰와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및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순천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시장 후보 인터뷰 프로그램도 별도로 편성하여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콘텐츠센터와 보도센터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보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행정통합에 따른 균형 발전 문제, 6.3 지방선거, 여수산단 위기 대응, 그리고 여수 세계섬박람회 홍보와 준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여수MBC가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하여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송사업센터 소관 사항은 정용우 센터장의 출장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현 위원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원 참석이 많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일 순천 민주당 경선 토론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후보자 공약과 비전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에 시정을 수행했던 후보와 신규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직을 수행했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공약 이행률, 성과와 한계 등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토론 구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대 및 대학병원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정치적 논리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정책은 전문가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실제 정책 방향을 보면 전문성 기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의대와 병원을 분리하거나, 복수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일부 논의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대학병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이며, 결국 하나의 대학과 하나의 상급종합병원 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 서남대학교 사례를 보면 정원 문제가 아니라 부속병원 부재로 인해 교육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교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대 설립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원이 아니라 병원 인프라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현장에서 최근 마약류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프로포플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 을 하는 사례가 동부권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울 등 타 지역 사례로만 인식했던 문제들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병현 위원

현재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정보가 기관 간 공유되지 않는 구조이며, 내시경 등 의료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물이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 1년에 3~4번 이상 맞으면 안 되는데 한 달에 6회 주사를 위해 피부나 통증 분야 시술 등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쇼핑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해당 사안은 지역에서 정보 공유가 제한적인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수MBC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지역사회에 알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연 위원

최근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관련 보도와 섬박람회 홈페이지의 다국어 서비스 미흡 문제를 접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가 반복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외국인을 단순 노동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 현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 및 팀 활동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섬박람회 프로그램과 연계한 콘텐츠를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금오도 등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외국인의 시선에서 지역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생들이 자국에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여수MBC의 해외 시청자 확보와 섬박람회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순천대학교에는 약 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국적도 다양합니다. 섬박람회 홈페이지 역시 영어와 중국어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한 언어 기반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의 역량이 높고 정부 장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토론 프로그램이나 체험형 콘텐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관련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앵커기업 유치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보도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ESG 경영, 지역사회 기여, 지속가능성 등 기업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심층적으로 보도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으로 안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안인수 위원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원료인 납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공장 가동도 에틸렌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절반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틸렌 가격이 완제품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족한 에틸렌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은 가격의 제품을 생산·공급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월까지의 버티고 있으나 4월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석유화학 제품 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최근 여수산단 2차 산업 개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NCC 통합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입니다. 기존 YNCC와 롯데케미칼 NCC 통합안을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폴리에틸렌 등 다운스트림까지 포함하는 통합 법인 설립 방안이 3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약 8조 원 규모의 매출과 EBITDA 기준 1천억 원 수준의 기업이 출범하게 됩니다. 향후 구조조정을 통해 2030년에는 매출 11조 원, EBITDA 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우려와 반발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조조정은 이익 확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새로운 희망을 열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보도 전반에서 여수산단의 위기와 부정적 전망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관련 보도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우려와 달리 이번 개편에서는 실질적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도록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언론과 산업계의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현 수준 유지만으로도 산업계는 어느 정도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업 간 협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여천산단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 특히 소비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30~40% 이상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 시장에 영향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인수 위원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틸렌 부족으로 폴리에틸렌, PVC 등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4월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4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안정은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위원장

소비 시장에서는 사재기 등 불안 심리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단 기업에서도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 보이며,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위원

오늘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말씀을 충분히 해주셔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만, 시청자위원회 참석 요청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안내를 받으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오늘 참석 상황을 보면서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고민과 각 분야의 의견을 공유받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청자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보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대가 큼니다. 다만 전달 방식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한 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인터뷰에서 단순 질의응답 방식에 그치기보다는 지역민 인터뷰를 중간에 삽입하여 보다 날카로운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성을 달리해보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공약 보도 시에도 공약 제시 이후 바로 지역민 반응을 연결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아니라 통합 체계 내에서의 구조적 해법,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의대의 캠퍼스 확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리스크와 관련한 산업 위기 역시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심층 보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만큼, 향후 파급 영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4월 1일 순천에서 여순사건 역사관 이전 개관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월 9일 순천 메가박스에서 상영 예정인 ‘나무의 노래’ 영화와 관련해서도 취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정리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나 정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국제 정세에 따라 단기간에 종료될 수도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슈 프리뷰' 코너는 지역 주요 일정을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해당 뉴스를 접할 때 지역 내 주요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기자들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후보자 인터뷰는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거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이 지역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특히 여수산단과 관련하여 후보자들이 실제 현장의 요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관련 대기업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들이 실제로 산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수산단은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각종 공사로 인해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위험 구간이 다수 존재하며, 조명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단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정책과 보도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동부권 소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통합 이후 재정 배분 과정에서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단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동 정세로 인해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제한되면서 기존 계약 물량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4월 가동률은 약 70% 수준으로 예상되며, 5월에는 40%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제 설비의 가동 중단도 검토해야 하

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비축유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비축유는 국가 위기 상황 대응 목적이기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수출 중심 구조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정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염혜란씨가 여수 출신으로, 최근 제주 4·3 관련 영화에 참여하며 베를린 영화제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배우가 여수에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출신 배우로서 여수에 대한 애정도 있는 만큼 여수MBC에서 인터뷰나 프로그램으로 연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투표 당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권자 권리를 훼손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선거 이후 곧바로 광주·전남 통합도시가 출범하는 만큼, 동부권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출범 이후 즉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기자의 발화 속도가 다소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보다 차분한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방선거가 약 6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약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미래 비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통합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이 단기간 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동부권의 경우 기존 인프라와 산업 기반, 특히 산단과 관련된 후방 산업 및 지역 기반 시설에 대한 보완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이 공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언론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수MBC에서도 관련 보도와 기획을 통해 이러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방이 없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와 행정통합 등 주요 이슈가 많아 관련 보도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특정 사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보도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후보자 인터뷰와 같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취재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심층 취재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밀도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과 방송 전반에 대해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측에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제작과 보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는 운영상 과반인 8인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므로, 일정이 사전에 공지되는 만큼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3월 시청자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